

2024년 11-1

# KIET 경제·산업동향

2024년 11월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최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특징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10월) ]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 요약 〉

### □ 해외경제 : 美 연준 소폭 추가 금리 인하, 유럽중앙銀 3번째 금리 인하

- 미국은 9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속에 3분기중 소비 호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전기비 2.8% 성장률을 기록하고, 연준이 25bp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
- 일본은 8월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지고, 유로존은 8월 인플레이 지표의 현저한 둔화 속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전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
- 중국은 지난 9월 내·외수 지표들의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낮은 4.6%를 기록하면서 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관심
- 달러화는 10월중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11월 들어 연준의 소폭 금리 인하와 美 대통령 선거 결과 등으로 추가 상승
- 유가는 10월 초 중동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급등한 이후,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과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등락

###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 감소·투자 확대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소폭 감소 전환(전월비 -0.2%)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동반 감소(-0.7%)함에 따라 전월비 기준 재차 감소(-0.3%)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준내구재 판매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비 0.4% 감소한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17.0%)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8.4% 증가

### □ 국내금융 : 10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1월 초(11월 1일 ~ 11일) 금리 제한적 하락 및 원/달러 상승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모두 확대되면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된 반면,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은 주택담보대출의 전월비 증가 규모가 축소되면서 전체 전월비 증가세가 더욱 둔화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초 중동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한 이후에, 한은의 금리 인하와 美 국채금리 상승, 美 대통령 선거 결과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10월중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美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하고, 11월 초 美 대통령 선거 결과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

□ 산업별 동향 : 9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4%, 서비스업생산 -0.2%

- 제조업생산은 조선·통신방송장비·화학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섬유·철강·반도체·기계장비·자동차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4% 감소
  - 제조업ICT 등 증공업 생산은 감소 전환, 경공업 생산도 감소폭이 확대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 등을 제외하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 숙박·음식점, 도소매 등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0.2% 감소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0.5% 증가

- 지난 9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8월 0.4% → 9월 0.5%)

□ 수출입 : 10월 수출 +4.6%, 수입 +1.7%, 무역수지 32억 달러 흑자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6% 증가한 575억 달러, 수입이 1.7% 증가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도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선박류·석유제품·디스플레이 등에서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EU·중남미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아세안·일본·인도·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가 3개월 연속 둔화(9월 7.5% → 10월 4.6%)

# 1. 해외경제

□ 미국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2.8%, 연준 추가 금리 인하

○ 9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 및 체감지표들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 방향성에 관심. 3분기중 소비 호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전기비 2.8%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연준이 소폭의 추가 금리 인하 단행

- 산업생산이 광업(전월비 -0.6%)과 제조업(-0.4%) 등의 동반 감소 여파로 전월과 달리 감소 전환(-0.3%)한 반면에, 소매판매는 주유소(-1.6%)와 전자제품(-3.3%) 등 판매의 상당폭 감소 영향에도 소폭 증가세 유지(0.4%)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 약세 영향에도 수주와 생산의 동반 상승에 전월 수준을 유지(47.2)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현재 평가지수(124.3)와 미래 기대지수(81.7)의 동반 하락 여파로 3개월 만에 하락 전환(98.7)
-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비 증가세가 확대(8월 +15.9만 개 → 9월 +25.4만 개)된 반면,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세(8월 -0.3% → 9월 -0.5%)
- 3분기중 소비 호조(3.7%)와 설비투자 확대(11.1%) 등에 힘입어 전기비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연준이 25bp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

##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1.9	2.5	1.4 (2.9)	3.0 (3.1)	2.8 (2.7)				
산업생산 (IT생산)	3.4 (6.5)	0.2 (5.7)	-0.4 (0.6)	0.6 (3.7)	-0.2 (1.7)	0.2 (-1.3)	-0.6 (0.9)	0.3 (1.3)	-0.3 (1.5)
내구재수주	8.2	4.4	-3.3	-1.1	3.9	-6.9	9.8	-0.9	-0.7
소매판매	9.1	3.6	-0.2	0.5	1.3	-0.3	1.2	0.1	0.4
소비자물가	8.0	4.1	0.9	0.7	0.3	-0.1	0.2	0.2	0.2
실업률(%)	3.6	3.6	3.8	4.0	4.2	4.1	4.3	4.2	4.1
무역수지(10억U\$)	-944.8	-784.9	-203.2	-223.2	-234.1	-73.0	-78.9	-70.8	-84.4
ISM 제조업지수 <sup>1)</sup>	53.5	47.1	49.1	48.8	47.1	48.5	46.8	47.2	47.2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104.5	105.4	106.3	98.9	102.1	97.8	101.9	105.6	98.7
경기선행지수 <sup>3)</sup>	115.1	106.3	102.5	101.3	100.1	101.0	100.5	100.2	99.7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8월 실물지표 혼조, 日銀(BOJ) 추가 금리 인상 재고 압력 가중

- 8월 생산 급감과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고, 무역수지는 수출입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면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적자 기조 지속. 경기선행지수가 상당폭 하락(전월비 -2.4%)하면서 경기 약세 조짐이 우려됨에 따라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재고(再考) 압력이 점차 가중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0	1.9	0.1	-0.6	0.7				
광공업생산	0.0	-1.4	1.1	-5.1	2.7	3.6	-4.2	3.1	-3.3
민간기계수주	5.4	-3.8	-1.3	4.4	-0.1	-3.2	2.1	-0.1	-1.9
소매판매	2.6	5.7	-0.9	0.0	1.8	1.6	0.6	0.2	1.0
소비자물가	2.5	3.3	0.9	0.2	0.8	0.5	0.3	0.2	0.5
실업률(%)	2.6	2.6	2.5	2.5	2.6	2.6	2.5	2.7	2.5
무역수지(10억엔)	-20,330	-9,322	-1,398	-1,767	-1,475	-1,223	219	-634	-703
경기선행지수 <sup>1)</sup>	112.3	109.2	109.4	111.1	110.4	111.0	109.1	109.3	106.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20년=100.

□ 중국 : 9월 내·외수 혼조세, 3분기 성장률 4.6%, 中 정부 대응책 관심

- 지난 9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 수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내·외수 지표들의 혼조세를 반영. 3분기 성장률이 2분기보다 낮은 4.6%에 그치면서 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5% 내외)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中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 등에 관심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0	5.2	5.3	4.7	4.6				
산업생산	3.4	4.6	5.8	5.9	5.0	5.3	5.1	4.5	5.4
고정투자(누계기준)	5.1	3.0	4.5	3.9	3.4	3.9	3.6	3.4	3.4
소매판매	-0.8	7.8	4.3	2.7	2.7	2.0	2.7	2.1	3.2
소비자물가	2.0	0.2	0.0	0.3	0.5	0.2	0.5	0.6	0.4
수출(달러화기준)	5.6	-4.7	1.1	5.7	6.0	8.5	7.0	8.7	2.4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8월 생산·소비 동반 증가, 유럽중앙은행(ECB) 3번째 금리 인하

- 8월 생산과 소비 등 내수 지표들이 동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역내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현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실물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들어 10월 정책이사회에서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하 단행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3.4	0.5	0.1	0.3	0.2				
산업생산	2.2	-2.1	0.1	-1.3	-0.2	-0.8	0.3	-0.5	1.8
소매판매	1.3	-1.9	0.3	0.0	0.3	0.1	-0.4	0.0	0.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8.4	5.4	2.7	2.6	2.5	2.6	2.5	2.6	2.2
무역수지(10억유로)	-346.0	55.1	38.2	58.7	45.6	11.4	16.0	13.7	11.0
경제체감지수 <sup>1)</sup>	102.1	96.4	94.8	96.0	95.9	96.2	96.0	96.0	96.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세 및 유가 제한적 등락

- 달러화는 10월중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유럽중앙은행(ECB)의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큰 폭 상승하고, 11월 초 연준의 소폭 금리 인하(25bp)와 미 대선 결과 등으로 추가 상승세
- 유가는 10월 중동궤 지정학적 불확실성 우려로 급등한 이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과 미 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하락하고, OPEC의 감산 규모 축소 가능성 등으로 반등세를 보이다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하락

주요 국제가액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4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11월
엔/달러	149.98	151.35	157.80	157.31	160.88	149.98	146.17	143.63	152.03	153.72
달러/유로	1.0805	1.0790	1.0666	1.0848	1.0713	1.0826	1.1048	1.1135	1.0884	1.0655
미 국채 (10년만기)	4.25	4.20	4.68	4.50	4.40	4.03	3.90	3.78	4.28	4.30
WTI유	78.3	83.2	81.9	77.0	81.5	77.9	73.6	68.2	69.3	68.0
두바이유	80.5	86.8	87.6	82.7	84.9	79.5	77.1	72.5	71.7	72.4

자료 : 한국은행, 「금리 및 환율 동향」.

##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9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3%, 소비 감소·투자 확대

○ 지난 9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소폭 감소 전환(전월비 -0.2%)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동반 감소(-0.7%)함에 따라 전월비 기준 재차 감소(-0.3%)

- 광공업생산이 기계장비(6.4%) 등에서 증가한 반면에, 반도체(-2.6%)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전월비 0.2%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보건·사회복지(-1.9%)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함에 따라 4개월 만에 감소(-0.7%)

###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GDP성장률	2.7	1.4*	3.3* (1.3*)	2.3* (-0.2*)	1.5** (0.1**)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4.2	1.8*	1.0* (0.7*)	0.9* (-0.2*)	1.3** (0.5**)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0.3	1.1*	-1.0* (-2.0*)	-2.5* (-1.2*)	6.3** (6.9**)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3.5	1.5*	1.6* (3.3*)	-0.5* (-1.7*)	-4.9** (-2.8**)	-	-	-	-
전산업생산지수 (농림어업 제외)	4.6	1.0	2.9 (0.7)	2.1 (-0.3)	0.9* (-0.2*)	0.5 (-0.1)	2.4 (-0.6)	1.3* (1.3*)	-1.1* (-0.3*)
광공업생산지수	1.0	-2.6	5.9 (-0.3)	4.8 (1.1)	2.5* (-0.9*)	3.8 (0.7)	5.2 (-4.0)	3.8* (4.4*)	-1.3* (-0.2*)
제조업생산지수	0.9	-2.6	6.2 (-0.5)	5.0 (1.5)	2.4* (-1.2*)	3.9 (0.7)	5.4 (-4.2)	3.7* (4.4*)	-1.4* (-0.1*)
서비스업생산지수	7.0	3.2	2.1 (0.8)	1.6 (-0.3)	1.0* (0.3*)	0.6 (0.3)	1.8 (0.4)	1.1* (0.3*)	-0.2* (-0.7*)
소매판매액지수	-0.3	-1.5	-2.1 (-0.5)	-2.9 (-0.8)	-1.9* (-0.5*)	-3.6 (0.9)	-2.2 (-2.0)	-1.3* (1.7*)	-2.2* (-0.4*)
설비투자지수	2.5	-4.9	0.3 (-3.8)	-1.5 (-0.2)	10.5* (10.1*)	-3.3 (3.5)	18.71 (9.7)	7.5* (-5.1*)	6.1* (8.4*)
건설기성(불변)	2.8	7.3	4.1 (4.9)	-3.0 (-6.2)	-8.8* (-4.2*)	-6.0 (-1.5)	-4.9 (-0.3)	-9.2* (-1.9*)	-12.1* (-0.1*)
동행종합지수(2020=10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8.2 100.9	110.2 100.1	111.8 99.9	111.8 99.3	111.3* 98.3*	111.7 99.0	111.2* 98.3*	111.3* 98.3*	111.5* 98.2*
선행종합지수(2020=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108.7 100.5	110.9 99.3	114.1 100.3	115.3 100.6	116.2* 100.6*	115.7 100.7	116.0* 100.7*	116.2* 100.6*	116.5* 100.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기준.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6.3%) 판매가 상당폭 증가한 영향에도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5%)와 의복 등 준내구재(-3.2%) 판매가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기준 0.4% 감소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15.1%)의 대폭 감소 여파에도 기계류(17.0%)가 상당폭 증가하면서 전월비 기준 8.4% 증가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건축(-3.7%) 공사 실적의 부진세가 이어지면서 감소세가 지속(-0.1%)
- 동행종합지수가 건설기성액과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한 반면,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수입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소폭 상승(0.2%)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금리차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한 반면에, 기계류 내수출하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상승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상승(0.3%)

□ 물가 : 10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보합(0.0%), 전년동월비 +1.3%

- 10월 소비자물가는 음식·숙박(전월비 0.5%)과 주택·수도·전기·연료(0.1%)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1.2%)과 식료품·비주류음료(-0.2%) 등에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비 보합(전년동월비 1.3%,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
-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세 유지(전월비 5.3% → 5.3%)에도 공산품 가격(-0.8% → -0.7%)의 하락세와 서비스 가격(0.0% → -0.2%)의 하락 등으로 전월비 하락세 지속(전월비 -0.2%, 전년동월비 1.0%)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비자물가	5.1	3.6	3.0 (0.7)	2.7 (0.3)	2.1 (0.4)	2.7 (0.1)	2.4 (-0.2)	2.6 (0.3)	2.0 (0.4)	1.6 (0.1)	1.3 (0.0)
근원물가	4.1	4.0	2.6 (0.5)	2.1 (0.4)	2.0 (0.3)	2.0 (0.2)	2.0 (0.1)	2.1 (0.1)	1.9 (0.1)	1.8 (0.1)	1.7 (0.3)
생산자물가	8.4	1.6	1.4 (0.8)	2.2 (0.6)	1.7 (0.1)	2.3 (0.1)	2.5 (0.0)	2.6 (0.3)	1.6 (-0.2)	1.0* (-0.2*)	-
근원물가	6.3	0.9	1.1 (0.6)	1.9 (0.9)	1.9 (0.0)	1.9 (0.3)	2.4 (0.1)	2.6 (0.2)	1.8 (-0.3)	1.3* (-0.3*)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의 지수를 각각 의미.

### 3. 국내금융

#### □ 기업자금·가계대출 : 10월 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10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체 기준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2024년 9월 +4.3조원 → 10월 +8.1조원, 대기업 +2.9조원, 중소기업 +5.3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 상환분이 재취급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확대
  - 중소기업 대출도 월말 부가가치세 납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
- 회사채는 기관 투자수요와 기업들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순발행 전환  
(2024년 9월 -1.3조원 → 10월 +0.6조원)
- CP·단기사채는 일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순상환 전환  
(2024년 9월 +1.1조원 → 10월 -1.5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전월비 증가 규모가 약간 더 확대  
(2024년 9월 +0.1조원 → 10월 +0.8조원)

####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원화대출	103.6	13.7	76.1	8.1	76.6	7.2	4.3	<b>8.1</b>	1,324.3
(대 기 업)	37.2	9.3	32.5	4.3	30.8	1.9	0.8	<b>2.9</b>	278.6
(중소기업)	66.4	4.4	43.6	3.8	45.8	5.3	3.5	<b>5.3</b>	1,045.7
<개인사업자>	20.2	0.1	7.5	0.5	6.0	0.8	0.3	<b>0.3</b>	456.3
■회사채 순발행	-5.4	-3.2	-0.3	-2.3	-0.4	-0.5	-1.3	<b>0.6</b>	..
■CP 순발행	18.7	3.1	5.7	2.5	3.0	-1.1	1.1	<b>-1.5</b>	58.5
■주식발행	20.6	0.4	7.1	0.6	6.5	0.4	0.1	<b>0.8</b>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10월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비 증가 규모가 더 축소된 데다, 기타대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전월비 증가세가 둔화  
(2024년 9월 +5.6조원 → 10월 +3.9조원)

-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지속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024년 9월 +6.1조원 → 10월 +3.6조원)
- 기타대출도 전월의 부실채권 매·상각 효과 소멸 등으로 소폭 증가  
(2024년 9월 -0.5조원 → 10월 +0.3조원)

###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22		2023		2024				24.10월말 잔액
	1~10월	10월	1~10월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은행 가계대출	-1.9	-0.7	28.5	6.7	44.5	9.2	5.6	<b>3.9</b>	1,139.5
▪주택담보대출	16.0	1.3	40.7	5.7	49.9	8.2	6.1	<b>3.6</b>	900.3
▪기타대출	-17.9	-1.9	-12.1	1.0	-5.2	1.1	-0.5	<b>0.3</b>	238.1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4년 10월중 금융시장 동향).

### □ 금리·환율 : 11월 초(11월 1일 ~ 11일) 금리 제한적 하락·원/달러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10월 초 증동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으로 하락 전환한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과 美 국채금리 상승세, 美 대통령 선거 등 영향으로 낙폭이 제한적 (11월 1일 2.939% → 11월 11일 2.901%, -0.04%p)
- 원/달러 환율은 10월중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우려와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하 가능성, 美 대선 불확실성, 중국 경기부양책 실망감 등으로 큰 폭 상승하고, 11월 들어 美 대통령 선거 결과로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11월 1일 1,379.4원 → 11월 11일 1,394.7원, +15.3원)

###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2	2023				2024			
		2/4	3/4	4/4	1/4	2/4	9월	10월	11.11일
국고채(3년)	3.72	3.66	3.88	3.15	3.32	3.18	2.81	2.94	<b>2.90</b>
회사채(3년,AA-)	5.23	4.47	4.64	3.90	3.93	3.66	3.40	3.50	<b>3.47</b>
CD(91일)	3.98	3.75	3.83	3.83	3.64	3.60	3.53	3.43	<b>3.43</b>
CP(91일)	5.28	4.02	4.08	4.32	4.24	4.17	3.62	3.54	<b>3.54</b>
원/달러	1,264.5	1,317.7	1,336.5	1,288.0	1,347.2	1,376.7	1,307.8	1,379.9	<b>1,394.7</b>
원/100엔	953.2	907.0	901.3	912.7	889.5	864.3	924.5	902.2	<b>906.2</b>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 4. 산업별 동향

### □ 제조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1.4%, 전월비 -0.1%

○ 제조업생산이 조선(21.1%)과 통신·방송장비(10.1%), 화학(1.6%)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섬유(-4.4%), 철강(-3.3%), 반도체(-3.0%), 기계·장비(-0.6%), 자동차(-0.5%)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1.4% 감소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5%) 등 중공업(-0.8%) 생산이 전년동월비 감소 전환하고, 경공업(-4.4%) 생산 역시 감소폭이 전월(-0.9%)보다 확대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계장비(6.4%)와 전자부품(4.7%), 컴퓨터(2.6%) 등 업종에서 증가한 반면, 조선(-4.7%)과 통신·방송장비(-3.3%), 반도체(-2.6%), 철강(-1.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0.1%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업종에서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둔화되고,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등 업종에서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8% 하락(2023년 8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6.8%로 전월에 이어 3.5%p 추가 하락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3분기 출하 감소폭이 확대(-0.4% → -0.6,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감소폭 역시 확대(-5.7% → -6.0%)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74.3%)보다 0.8%p 하락

### □ 서비스업생산 : 9월중 전년동월비 -0.2%, 전월비 -0.7%

○ 서비스업생산은 운수·창고(3.9%), 보건·사회복지(1.2%)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3.1%), 숙박·음식점(-3.0%), 도소매(-2.0%)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한 여파로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0.2%)

- 전월비로도 도소매(0.9%) 등 소수 업종만 증가하고, 보건·사회복지(-1.9%), 정보통신(-1.8%), 전문·과학·기술서비스(-1.8%),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서비스(-1.8%), 운수·창고(-1.3%)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하면서 0.7% 감소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0.5%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 5.1% 증가

## 산업별 생산 동향

(2020=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22	2023	2024						
				1/4	2/4	3/4*	7월	8월*	9월*	전월비*
<b>광공업 (원지수)</b>	10,000	109.6	106.8	107.5	111.5	109.1	109.1	109.9	108.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0	-2.6	5.9	4.8	2.5	5.2	3.8	-1.3	-0.2
<b>제조업 (원지수)</b>	9,532.0	109.8	106.9	106.9	112.5	109.5	109.5	110.1	109.0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9	-2.6	6.2	5.0	2.4	5.4	3.7	-1.4	-0.1
섬 유	110.6	-1.8	-9.4	-6.2	-1.0	-2.5	-0.7	-2.3	-4.4	0.8
화 학	756.8	-9.9	-9.6	-2.3	3.3	3.6	5.7	3.5	1.6	0.9
철 강	433.8	-8.4	2.7	0.4	-8.4	-4.1	-6.3	-2.5	-3.3	-1.3
반도체	1,855.1	5.4	-2.0	44.7	22.3	8.8	21.7	11.0	-3.0	-2.6
전자부품	517.8	-14.9	-18.7	9.1	10.1	-0.9	0.9	-3.1	-0.3	4.7
컴퓨터	30.0	11.2	-12.4	-8.4	-18.5	-19.3	-5.1	-16.8	-31.9	2.6
통신·방송장비	134.7	-5.2	-4.0	-11.6	8.4	27.9	67.0	25.9	10.1	-3.3
기계·장비	776.7	0.6	-7.8	-4.9	-0.7	1.2	5.0	-0.5	-0.6	6.4
자동차	1,014.2	9.1	10.2	-3.2	-0.8	-3.7	-9.9	0.1	-0.5	-0.5
조 선	76.7	21.0	2.3	-7.3	5.3	21.8	22.4	21.9	21.1	-4.7
- 중 공 업	8,111.7	1.0	-2.0	7.4	5.8	3.1	5.8	4.5	-0.8	0.0
- 경 공 업	1,420.3	0.7	-5.9	-1.2	0.6	-0.9	2.6	-0.9	-4.4	-0.4
- 제조업ICT	2,537.6	0.5	-5.6	32.4	18.8	7.3	18.6	8.6	-2.5	-1.4
제조업 생산능력	10,000	-0.5	0.1	1.6	1.1	0.3	0.8	0.9	-0.8	-0.2
<b>서비스업 (원지수)</b>	1,000	112.3	115.8	114.0	117.4	116.2	116.8	115.9	115.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7.0	3.2	2.1	1.6	1.0	1.8	1.1	-0.2	-0.7
도소매	192.0	2.7	-0.7	-4.0	-2.2	-2.1	-3.1	-1.2	-2.0	0.9
운수및창고	85.6	18.4	12.5	12.6	10.5	7.0	9.0	8.1	3.9	-1.3
숙박및음식점	49.3	16.9	0.8	-1.7	-1.4	-1.9	-2.9	0.2	-3.0	-0.2
정보통신	84.3	1.5	0.0	6.6	4.4	2.1	5.9	1.1	-0.7	-1.8
금융및보험	174.9	8.6	6.2	3.5	2.8	1.9	2.7	1.2	1.8	-0.3
부동산	31.7	8.0	3.2	2.9	0.7	-0.6	1.6	-0.1	-3.3	-0.1
전문·과학및기술	97.2	2.3	1.5	0.5	1.5	2.2	4.3	2.1	0.1	-1.8
사업시설관리 등	51.6	5.3	5.0	3.4	1.1	-0.4	1.7	0.4	-3.1	-1.8
교 육	69.1	1.2	0.4	-1.1	-0.6	-0.2	0.4	0.0	-1.0	0.4
보건및사회복지	110.6	7.7	3.6	4.2	1.0	2.1	2.6	2.6	1.2	-1.9
예술·스포츠및여가	18.1	43.7	6.9	4.1	4.8	1.7	-0.9	3.4	2.5	-4.5
협회·수리및개인	23.5	4.4	4.2	-0.2	1.0	-1.9	2.1	-3.2	-4.6	-0.6
수도·하수및폐기물	12.1	-4.6	-1.6	-2.4	-1.4	-1.3	0.1	-2.7	-1.4	1.5
- ICT서비스업	-	5.3	1.2	4.2	3.2	0.8	3.3	-1.3	0.5	5.1

자료 : 통계청.

주 1) \*는 잠정치 기준. 2) 제조업ICT는 사무회계·통신기기·반도체 기준.

## 5. 고용

###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0.5% 증가

- 지난 9월 전산업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과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세가 전월보다 약간 더 확대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8월 0.4% → 9월 0.5%)
  -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전월과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감소세(-0.8% → -1.1%, 2023년 10월 이후 최대폭 감소)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도 5개월 연속 감소(-2.4% → -2.6%)한 반면,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0.9% → 1.0%)
  - 건설업의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세(-3.9% → -4.6%)를 보이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역시 4개월 연속 감소세(-0.9% →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2.0% → -2.9%)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정보통신업(9.7% → 10.1%)을 비롯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7.0% → 6.1%)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1.9% → 3.4%),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2.2% → 2.6%) 등에서 취업자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세가 확대(0.9% → 1.6%)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2.5%로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 전환

###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8,089	28,416	28,061	28,838	28,833	28,915	28,907	28,857	28,801	28,842
전년동기비	3.0	1.2	1.1	0.5	0.5	0.3	0.3	0.6	0.4	0.5
농림·어업	4.6	-0.8	-2.3	-1.2	-2.2	-2.0	-2.0	-1.6	-2.4	-2.6
제조업	3.1	-0.9	0.8	1.1	-0.7	0.8	0.2	-0.2	-0.8	-1.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2.9	1.7	1.3	0.5	1.0	0.3	0.5	0.9	0.9	1.0
건설업	1.6	-0.4	2.1	-1.7	-4.1	-2.2	-3.1	-3.9	-3.9	-4.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8	1.4	-0.1	0.0	-0.8	0.1	-0.1	-0.5	-0.9	-1.0
전기·운수·통신·금융	3.9	1.8	3.4	3.6	5.8	3.0	4.1	5.1	6.3	6.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9	2.3	1.2	0.3	1.3	0.1	0.4	1.2	0.9	1.6
실업률 (계절조정, %)	2.9	2.7	2.8	2.8	2.5	2.8	2.8	2.5	2.4	2.5

자료 : 통계청.

## 6. 수출입

□ 10월 수출 4.6% 증가, 수입 1.7% 증가, 무역수지 32억 달러 흑자

○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6% 증가한 575억 달러, 수입이 1.7% 증가한 544억 달러로써 무역수지는 약 3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CT 품목에서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도 증가세를 보인 반면, 선박류·석유제품·디스플레이 등에서 감소하고, 지역별로는 미국·중국·EU·중남미 등 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에, 아세안·일본·인도·중동 등지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가 3개월 연속 둔화(9월 7.5% → 10월 4.6%)

- 수입은 에너지(원유·가스) 수입이 2개월 연속 감소(-6.7%)하고, 비에너지 수입 증가세도 둔화(4.1%)되면서 전월에 이어 전체 증가율이 하락(1.7%)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8.7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8.1%나 하락하고, 도입물량 역시 0.2%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금액이 17.9% 감소한 약 66억 달러를 기록

###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수출	6,836 (6.1)	6,322 (-7.5)	1,634 (8.1)	1,715 (10.1)	1,738 (10.6)	574 (5.6)	573 (13.5)	577 (11.2)	588 (7.5)	575 (4.6)
수입	7,314 (18.9)	6,426 (-12.1)	1,549 (-11.0)	1,570 (-1.4)	1,600 (6.2)	491 (-7.5)	539 (10.5)	541 (6.0)	521 (2.2)	544 (1.7)
무역수지	-478	-103	85	146	137	83	34	37	67	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ICT 다수 업종과 자동차·화학·철강 수출 증가, 조선 등 일부 업종 감소

○ 반도체 :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고부가제품(HBM·DDR5 등)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2023년 11월부터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자동차** : 고가의 신차 수출 확대와 북미 시장 중심의 하이브리드·내연차 등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북미 지역에서 국산차의 견조한 수요세가 이어지는 데다, 현지 생산을 위한 부품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 **선박류** : 고부가가치 선박(LNG운반선·컨테이너선) 수출 지속에도 계획된 인도 일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3개월 만에 상당폭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신형 IT제품 수요의 예상외 부진과 전년동월의 호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3개월 연속 감소세
- **무선통신기기**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개선과 고부가 카메라 모듈 탑재형 신규 모델 출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시장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출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 전환
- **섬유** : 중동 지역의 물류 운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요 소싱 지역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석유제품** : 유가 하락에 따른 주요 제품들의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세
- **석유화학** : 유가 영향에 따른 단가 하락에도 업계 신증설 설비가동 확대 등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로 수출이 2개월 만에 증가
- **일반기계** : 글로벌 제조업 및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미·아세안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3개월 연속 감소세
- **가전** : 글로벌 AI 스마트 가전 수요 확대 등에 따른 주요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컴퓨터** : AI 서버 향 SSD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수출시장(미국·EU 등)의 대규모 투자 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이 올해 들어 10개월 연속 증가세

##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자동차	16.4	31.1	2.7	4.8	-3.2	-0.4	-9.2	-4.4	4.9	5.5
자동차부품	2.4	-1.6	-0.5	-4.8	-2.5	-11.7	2.3	-3.6	-6.6	5.9
선박류	-20.9	19.9	57.4	4.3	35.7	-39.8	-36.5	78.8	76.2	-28.5
일반기계	2.0	4.6	0.4	-4.1	-2.1	-8.3	12.6	-5.9	-13.3	-8.1
철강	5.7	-8.5	-5.6	-14.4	-3.8	-24.3	-5.4	-2.0	-3.9	8.8
석유화학	-1.4	-15.9	0.0	10.8	7.9	11.9	18.5	6.7	-0.6	10.2
석유제품	64.9	-17.3	4.3	11.5	-2.4	10.5	15.7	-1.2	-17.8	-34.9
섬유	-4.0	-11.3	-7.0	-3.1	-2.1	-11.2	1.2	-5.0	-2.8	2.5
가전	-7.4	-1.0	1.6	5.4	-3.4	-0.3	9.3	-5.0	-13.9	5.0
무선통신기기	-10.4	-10.2	-9.8	8.2	38.1	3.8	53.8	51.3	19.0	19.7
컴퓨터	-4.7	-53.3	26.3	58.9	118.9	58.9	61.7	181.6	132.0	54.1
반도체	1.0	-23.7	50.7	53.5	41.4	50.9	50.2	38.8	37.1	40.3
디스플레이	-1.1	-12.1	12.5	19.5	-2.4	26.0	2.4	-4.9	-4.3	-22.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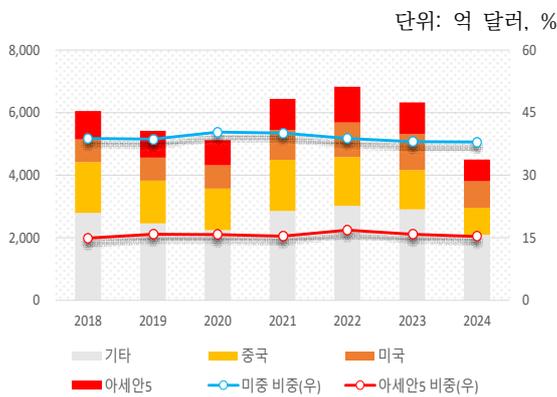
주 : 10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최근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수출 특징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24년 10월)

- 최근 국내 수출이 G2(미·중)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의존도와 양국의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는 경우, 한국의 對아세안-5 수출 비중과 전체 수출 기여도가 높은 데다, 향후 높은 경제성장 가능성으로 수입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나, 아세안-5의 對한국 수입 비중은 8%(2018~23년) 내외로 미미

〈 한국의 對미·중·아세안-5 수출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24년은 1~8월 누계 기준.

〈 아세안-5 성장률 및 수입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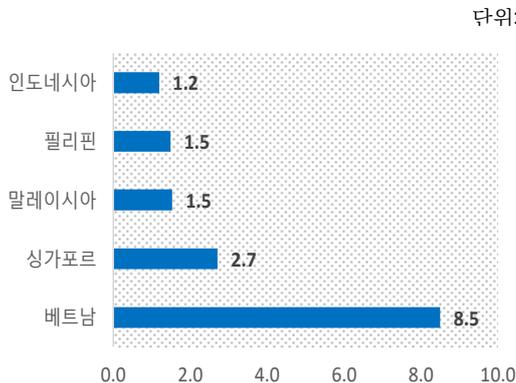
	경제성장률		수입 증가율	
	2024	2025	2024	2025
베트남	5.8	6.5	8.8	7.6
싱가포르	2.1	2.3	11.8	5.0
인도네시아	5.0	5.1	16.2	12.8
말레이시아	4.4	4.4	4.2	4.1
필리핀	6.2	6.2	5.2	9.7

자료 : IMF WEO(2024년 4월).  
주 : 전망치 기준.

**□ 對아세안 수출의 특징**

- (국가별 특징) 한국의 對아세안-5 수출은 주로 베트남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 베트남은 한국의 對아세안-5 수출에서 53.4%, 전체 수출에서 8.5%를 차지
  -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기여도는 다른 아세안-5 국가들보다 약 4~7배 큰 수준

〈 對아세안-5 국가별 수출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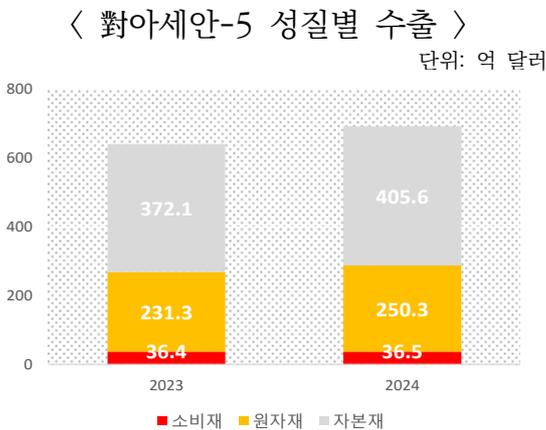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24년은 1~8월 누계 기준.

〈 對아세안-5 국가별 수출 기여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성질별 특징)** 한국의 對아세안-5 수출은 재화 성질별로 자본재(58.6%), 원자재(36.1%), 소비재(5.3%)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
  - 자본재 수출은 반도체(169.1억 달러), 무선통신기기(68억 달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원자재 수출은 광물성연료(112.3억 달러)가 절반을 차지
  - 소비재 수출은 비내구소비재 가운데 화장품류(6.6억 달러), 내구소비재 가운데서는 내구성 생활용품(5.3억 달러), 자동차(3.8억 달러) 등의 비중이 높음.
- **(품목별 특징)** 한국의 對아세안-5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의 절반(50%) 이상이 상위 5개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
  - 상위 5개 품목의 수출 비중이 2023년 54.0%에서 2024년 57.9%로 전년 대비 4.0%p나 상승하면서 상위 품목 편중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구조
  - 특히 반도체(24.4%), 석유제품(16.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10.7%) 등 상위 3개 품목의 對아세안-5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



자료 : 관세청.  
주 : 2024년은 1~8월 누계 기준.

〈 對아세안-5 수출 상위 5개 품목 〉  
단위: %, %p

품목	2023 (%)	2024 (%)	증감 (%p)
반도체	20.8	24.4	3.6
석유제품	15.2	16.2	0.9
평판디스플레이·센서	11.8	10.7	△1.0
합성수지	3.1	3.5	0.4
선박해양구조·부품	3.1	3.1	0.0
<b>합계</b>	<b>54.0</b>	<b>57.9</b>	<b>4.0</b>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24년은 1~8월 누계 기준.

## □ 시사점

-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수출 경기 약화 등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출의 경기 버팀목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성장 기대가 큰 아세안-5 시장의 전략적 활용도 제고 노력이 시급
- 아세안 시장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상 외교와 경제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투자 지원을 확충하여 아세안 지역의 성장 활력을 적극 활용
- 아세안 시장은 향후 풍부한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품목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
- 對아세안-5 수출의 특정 국가 및 일부 상위 품목에 편중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역내 시장 다변화 및 품목 다각화 등의 노력에 경주할 필요

#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 11.11일 )	( 11.12 )	( 11.13일 )	( 11.14일 )	( 11.15일 )
		 9월 산업생산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고용동향	 23.3분기 실질GDP (잠정치)  10월 생산자물가	 23.3분기 실질GDP (잠정치)  9월 산업생산(수)  9월 소매판매(수)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 11.18일 )	( 11.19일 )	( 11.20일 )	( 11.21일 )	( 11.22일 )
 9월 기계수주  9월 수출입통계	 10월 소비자물가(수)	 10월 무역수지(잠)  10월 생산자물가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경기선행지수
( 11.25일 )	( 11.26일 )	( 11.27일 )	( 11.28일 )	( 11.29일 )
 9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11월 소비자신뢰지수  11월 소비자동향조사	 10월 개인소비  10월 내구재수주(잠)  23.3분기 실질GDP (수정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0월 무역수지(수)  11월 경제체감지수  금융통화위원회	 10월 산업생산(잠)  10월 소매판매(잠)  10월 실업률  11월 소비자물가(예)  10월 산업활동동향
				( 12.1일 )
				 11월 수출입통계
( 12.2일 )	( 12.3일 )	( 12.4일 )	( 12.5일 )	( 12.6일 )
 10월 실업률  11월 ISM 제조업지수	 11월 소비자물가	 11월 ISM 서비스업지수	 10월 소매판매  10월 무역수지  23.3분기 실질GDP (잠정치)	 10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23.3분기 실질GDP (확정치)  11월 고용보고서
				( 12.7일 )
				 11월 수출입통계